



## “위기극복” 단체공조 통해 해법찾자 인쇄단체장 신년간담회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이 참석한 인쇄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1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인쇄정보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인쇄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단체 간의 협력과 단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인쇄단체가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각 단체별 행사의 공조를 이뤄 난관극복의 선봉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음은 단체장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홍우동 회장

홍우동 회장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희망의 소리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업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단체들이 앞장서서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찾고, 단체 간의 공조와 협력으로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충원 회장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시행하는 국제행사가 많은데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행사에 우리 단체장들이 적극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는 9월에 일본에서 JGAS와 함께 아시아인쇄기술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단체장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배 회장 오는 5월 북경에서 인쇄기자재전시회가 열리는데 우리 기술협회에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석 이사장** 우리 조합은 아시아인쇄기술 포럼이 열리는 시기에 동경 도인쇄조합과의 교류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동경도서전에는 센터에서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충원 회장** 동경도인쇄조합 이사장이 연합회장을 맡고 있지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홍우동 회장** 국제교류도 그렇지만 국내 행사도 가능하면 시기를 조절해서 같은 날에 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쇄문화의 날과 인쇄대상 시상식도 같은 날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참여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조정석 이사장**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인증사업이 시급합니다. 일부 수요처에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협회에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우동 회장** 품질인증 사업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관련단체 및 기관과 협의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조정석 이사장** 서체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체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상태이며 우리의 표준서체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충원 회장** 그렇습니다. 서체 문제도 우리 업계의 과제입니다. 국가 차원의 표준서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서체연구 조항이 있으니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배 회장** 인쇄견적을 내는 방법을 일부 개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구체화된 견적서가 오히려 단가를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석 이사장**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이 있습니다만 우리 업계 자체의 표준 단가표 제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홍우동 회장** 사실 언젠가는 조달청 기준요금이 폐지될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표준원가계산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원 회장**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며칠 전 조달청을 방문해서 올해의 인쇄기준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정석 이사장** 우리 업계의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기업의 인쇄업 진출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단결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충원 회장** 지난해에 인쇄부자재 가격이 크게 인상되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름 값이 내리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데 기자재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인상조짐까지 있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정석 이사장** 조합에서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홍우동 회장** 우리 단체장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고 기축년 새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



이충원 회장



조정석 이사장



김진배 회장